



충청지역
은행나무

아들을 갖게 한 신목의 은행나무

✿	지정번호	예산-8-69	✿	충남 예산군 웅봉면
	지정년도	1982		증곡리 198
	관리기관	예산		36° 39' 18.00" N
	수령	678년		126° 46' 41.28" E
	수고	23m		
	흉고둘레	6.3m		

줄곧 경사가 있는 마을길에 있던 보호수(예산-8-69) 은행나무는 최근 수평으로 작업하여 놓은 곳에서 하늘 높이 우뚝 솟아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모양이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외과수술로 위쪽의 나뭇가지가 많이 잘린 모습이었다. 최근 기력을 잃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 부패한 나무줄기를 크게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웅장하게 보이는 자태만큼은 여전하다. 은행나무의 나이는 678년으로 추정되지만 일부 자료에는 880여 년으로 기록하고 있기도 하다. 나무높이는 23m 정도이지만 가지가 잘리기 전에는 거의 30m에 달하기도 하였다. 가슴높이둘레는 630cm, 밑동둘레는 625cm 정도이다. 나무갓은 너비가 20m 정도이다. 원줄기는 밑쪽 동치가 건강하였으나 가지 줄기가 여러 개로 크게 갈라진 후 끝부분이 고사하여 대부분 잘려나갔다. 생육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전승하는 이야기는 아들을 낳게 하는 효험이 있는 나무로 알려져 있다. 1930년 대의 일이다. 마을에 사는 한 여인이 1년 내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새벽에 이 은행나무 아래에서 치성을 드렸다. 이 여인은 결혼 후 5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되자 동네의 큰 나무를 신목으로 생각하여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이다. 그래서인지 여인은 치성을 드린 지 1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으며 이듬해에 아들을 낳았다. 이후 이러한 소문이 마을에 퍼지면서 아이를 낳으려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 나무에 치성을 드렸다. 기록에는 선녀들이 이 은행나무에 내려왔다고 하여 선녀굴이라 부르고 있으나 마을 주민은 자손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무에 기도하여 자손을 얻었다고 하여 선녀굴이라 부르고 있다고 하였다. 은행나무 곁에서 만난 마을 주민은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가지가 갈라지거나 꺾였는데, 6·25한국전쟁 당시에 가지가 많이 부러졌다고 강조하였다. 마을에서는 은행나무가 영험한 것으로 여겨 가을 추수가 끝나고 나면 이 나무 아래에서 제를 지내고 있다. 한편 붉은 가지가 갈라진 부근에서 앵두나무가 기생하여 자라고 있다.